

科 目 名	受験番号：
코리아語	氏 名：

下記【1】【2】の設問に答えなさい。

【1】次の코리아語を全文日本語に訳しなさい。

한국어의 문자인「한글」은 조선시대의 네 번째 임금인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말과 글을 배우기 어려워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전해진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한자로는 한국어의 음을 그대로 표기하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한자는 글자 수가 많고 복잡해서 배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학자들에게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도록 했습니다.「집현전」이라는 연구소를 만들어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도록 했으며, 밤 늦게까지 연구하는 학자들을 찾아가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1443년에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인「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문자를 구성하는 표음 문자인데, 자음은 발음이 나는 입 모양을 기준으로, 모음은 천(天), 지(地), 인(人)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 24자(자음 14자와 모음 10자)로 모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문자입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당시에는「한글」이라고 하지 않고「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했습니다. 훈민정음은「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은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이날은 각종 기념식과 학술행사가 열리고, 모두가 한글의 고마움을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이외에도 해시계나 측우기 등 많은 과학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出典：金眞他『韓国社会を読む』、朝日出版社、2010年)

*参考用語

세종대왕：世宗大王（1397-1450）、朝鮮王朝第4代の王

백성：民

집현전：集賢殿（學術研究機關の名称）

한글날：ハングルの日

해시계：日時計

측우기：測雨器

(裏面につづく)

【2】次のコリア語の内容を日本語で200字以内に要約しなさい。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는 식사 예절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먼저 상차림을 보면 물기가 많은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은 오른쪽에 놓습니다. 찬 음식이나 마른 반찬 종류는 왼쪽에 놓는데, 이것은 주로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숟가락을 주로 사용하는 한국에서는 국이나 찌개와 같이 국물이 있는 음식 문화가 발달하였고, 젓가락은 국물이 없고 집을 수 있는 반찬을 먹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밥과 국을 먹을 때나 찌개와 같이 국물이 있는 반찬을 먹을 때에도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는 일본에서는 초밥이나 구이와 같이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밥과 반찬을 먹을 때 젓가락만 사용하고 「미소시루」와 같은 국 종류를 먹을 때에도 숟가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과 한국의 식사 예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그릇이나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지만, 한국에서는 그릇을 손에 들고 먹으면 안됩니다. 일본의 밥그릇은 손에 들고 먹어도 손이 뜨겁지 않도록 그릇에 받침이 있지만, 한국의 밥그릇은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정감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그릇도 손에 들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국물이 있는 반찬은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식사할 때에는 웃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한 후에 아이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웃어른의 식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실례가 됩니다. 새로운 요리나 진귀한 반찬은 웃어른이 먼저 드시고 나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려진 음식을 조금 남기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최근에는 맛있게 다 먹는 것도 미덕입니다.

(出典：金眞他『韓国文化を読む』、朝日出版社、2010年)

*参考用語

유교：儒教

상차림：食膳の様子

마른 반찬：汁気の無いおかず

받침：支え、台

어른/웃어른：目上の人、大人

진귀한 반찬：珍しいおかず

미덕：美德